

천추에 용서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자들은 가장 처참한 징벌을 받을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보도와 담화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뢰군부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를 살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지난 24일 피뢰군부패당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초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남조선피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인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는 얼어붙고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

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피뢰군부패당이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뒤집는 극악무도한 도발을 감행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더우기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인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위협하는 뼈라살포놀음을 벌여놓은것은 대결의식이 필수에까지 짝 들어찬 피뢰군부 불한당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무지막지한 란동이다.

피뢰군부패당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대북심리전은 비방

증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역겨운 망발을 공공연히 체치면서 신행뼈라포란을 개발하여 배비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심리전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과 우익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뼈라살포놀음을 벌리게 하고는 비방중상 중지합의를 지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무슨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는 꾀변으로 변명해나섰다.

이번에 피뢰군부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범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놀음을 하고있으나 집안에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을 고취하는 반공화국소동을 험악하게 벌리고있다.

제 집안에서는 온 세상이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데 밖에 나가 감람나무가지를 흔들어대는 회비국이야말로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신퇴》니, 《통일》이니 하는 말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에 매달리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잡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보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과국적후과

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소동과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미처날뛰는 피뢰군부악당들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내역죄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무지막지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이 가져올 과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각 계층이 더치는 분노의 목소리

빼도 추리지 못할것이다

숙담에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더니 지금 피뢰군부패당이 노는 꼴이 그격이다.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광기를 부리는 피뢰군부호전광들때문에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초처럼 마련되지 못하고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까지 조성되고있다.

그런데 이제는 서해의 최대열점지역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까지 대량 살포하고있으니 이는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고교이다.

자기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리는자들은 누구도 용서해본적이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지금 대결에 환장이 되어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있는 피뢰군부패당에 대한 공화국 천만군민의 중요심은 하늘끝에 닿아있다.

한글끝에 닿아있다.

남침 피뢰군부호전광들이 폭발직전에 이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오히려 경기망동한다면 그때는 아예 빼도 추리지 못하게 될것이다.

경공업성 국장 최창범

우리 공장 절단기로 아예 뭉쳐...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초포를 쏘아대며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누를수 없다.

북과 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 기

백령도는 월내도의 코앞에 있다

나는 조국의 최남단 서부지역에 위치한 월내도에서 병사생활을 하고 내 조국을 총대로 갈까지 지킬 일념으로 군사복무의 나날을 계속 이어가고있는 군관이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술한 종이장들이 바람에 날려온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1)

이 땅에 차고넘치던 통일의 환희를 짓밟으려고

미국의 침략행위를 저지른자들은 가장 처참한 징벌을 받을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보도와 담화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뢰군부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를 살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지난 24일 피뢰군부패당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초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남조선피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인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는 얼어붙고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

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피뢰군부패당이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뒤집는 극악무도한 도발을 감행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더우기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인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위협하는 뼈라살포놀음을 벌여놓은것은 대결의식이 필수에까지 짝 들어찬 피뢰군부 불한당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무지막지한 란동이다.

피뢰군부패당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대북심리전은 비방

증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역겨운 망발을 공공연히 체치면서 신행뼈라포란을 개발하여 배비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심리전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과 우익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뼈라살포놀음을 벌리게 하고는 비방중상 중지합의를 지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무슨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는 꾀변으로 변명해나섰다.

이번에 피뢰군부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범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놀음을 하고있으나 집안에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을 고취하는 반공화국소동을 험악하게 벌리고있다.

제 집안에서는 온 세상이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데 밖에 나가 감람나무가지를 흔들어대는 회비국이야말로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신퇴》니, 《통일》이니 하는 말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에 매달리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잡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보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과국적후과

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소동과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미처날뛰는 피뢰군부악당들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내역죄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무지막지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이 가져올 과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관문점분리선은 말한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콘크리트선이 판문점의 분리선이다.

너비 50cm, 높이 5cm.

한걸음이면 쉽게 넘어설수 있건만 이 분리선에 막혀 북과 남의 우리 거래는 근 70년간 오도가도 못하며 리별과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다.

대대로 한강도우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문화를 꽃피워온 조선민족을 두동강낸 이 원한의 분리선을 만들어낸것은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분렬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리 어금

관문점분리선은 말한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콘크리트선이 판문점의 분리선이다.

너비 50cm, 높이 5cm.

한걸음이면 쉽게 넘어설수 있건만 이 분리선에 막혀 북과 남의 우리 거래는 근 70년간 오도가도 못하며 리별과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다.

대대로 한강도우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문화를 꽃피워온 조선민족을 두동강낸 이 원한의 분리선을 만들어낸것은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분렬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리 어금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1)

이 땅에 차고넘치던 통일의 환희를 짓밟으려고

미국의 침략행위를 저지른자들은 가장 처참한 징벌을 받을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보도와 담화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뢰군부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를 살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지난 24일 피뢰군부패당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초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남조선피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인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는 얼어붙고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

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피뢰군부패당이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뒤집는 극악무도한 도발을 감행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더우기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인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위협하는 뼈라살포놀음을 벌여놓은것은 대결의식이 필수에까지 짝 들어찬 피뢰군부 불한당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무지막지한 란동이다.

피뢰군부패당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대북심리전은 비방

증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역겨운 망발을 공공연히 체치면서 신행뼈라포란을 개발하여 배비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심리전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과 우익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뼈라살포놀음을 벌리게 하고는 비방중상 중지합의를 지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무슨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는 꾀변으로 변명해나섰다.

이번에 피뢰군부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범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놀음을 하고있으나 집안에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을 고취하는 반공화국소동을 험악하게 벌리고있다.

제 집안에서는 온 세상이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데 밖에 나가 감람나무가지를 흔들어대는 회비국이야말로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신퇴》니, 《통일》이니 하는 말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에 매달리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잡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보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과국적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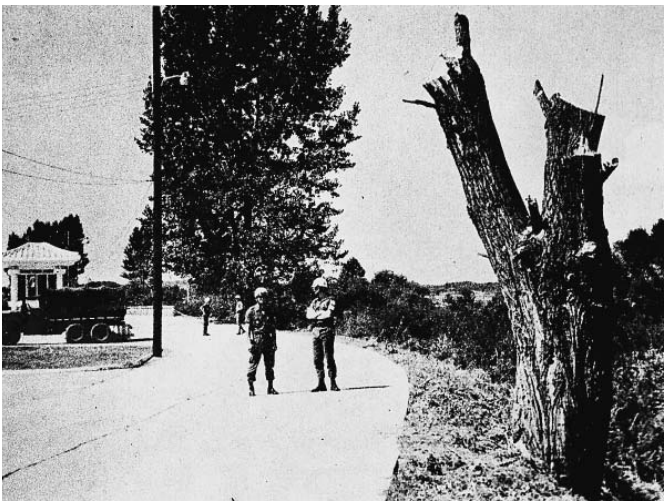
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소동과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미처날뛰는 피뢰군부악당들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내역죄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무지막지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이 가져올 과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판문점사건현장